

韓國 古典의 譯註와 國語國文學

李 賢 熙

1. 머리 말
2. 고전 역주 작업의 목표와 의의
3. 한국문화연구소 역주 사업의 방향과 실제
4. 마무리

1. 머리 말

‘韓國 古典의 譯註’라고 하면, 먼저 ‘한국 고전’이라는 실체에 대한 정의와 ‘역주’라는 작업의 의미에 대하여 음미함으로써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글(1)에서 뜻하는 한국 고전과 역주는 현재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에서 5년에 걸쳐 수행하고 있는 국어국문학 방면의 ‘고전 작품의 역주 사업’과 관련지어 그 의의와 방향을 가늠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문화연구소에서 연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고전 작품의 역주 사업은 국어국문학 방면의 역사적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생각하고 있는 ‘古典’과 이 역주 사업에서 뜻하는 ‘古典 作品’이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음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여기서 뜻하는 ‘고전 작품’은 국어국문학 방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역사적 문헌 자료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譯註는 대상 문헌을 현재화하는 현대국어로의 번역 작업과 그 텍스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주석 작업을 동시에 행하는 작업이다. 번역 작업은 대상언어를 목표언어로 전환시키는 일을 일컫는다. 이 번역 작업에 있어서는 逐字譯(즉, 직역)을 할 것이냐, 自由譯(즉, 의역)을 할 것이냐 하는

(1) 이 글은 1995년 11월 13일에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에서 행한 제7회 학술 토론회에서 발표된 논문이다. 토론자로 참여하여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정재영 선생께 감사드린다.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주석 작업에 있어서는 한 글자나 단어의 수준에서 해석하는 釋詞와 한 구나 여러 구절을 해석하는 串解(혹은 串講), 전체 문장의 대의를 밝히는 通釋을 어느 정도 섞어서 어느 수준까지 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훈고학적 관점에서의 주석 작업은 특히 典據의 제시가 중요한 몫을 차지하기도 한다. 또한 여러 異本이 존재할 경우에는 원전의 교감 작업도 행해져야 한다. 한국문화연구소에서의 역주 작업은 대체로 번역에 있어서는 축자역을, 주석 작업에서 있어서는 釋詞를 바탕으로 천해를 약간 가미한 모습으로 행해졌다. 그러나 해제논문을 마련하여, 실제의 주석 작업에서는 행하기 어려운 교감 작업을 일부 시도하기도 하였다.

국학 방면에서의 고전의 역주 작업은 이미 일제시대부터 행해져 왔기 때문에 상당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기초 작업의 중요성이 일찍부터 인식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러한 기초 작업의 단계를 지나서야 해당 학문에서의 연구가 심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대적 관점에서는 연구논문 집필이나 단행본 저술보다 역주 작업의 가치가 폄하되기도 하였으나, 사실상 충실한 기초 작업의 토대 없이 이루어진 연구는 砂上樓閣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제대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어학 방면에서는 고전의 역주가 바로 국어에 대한 역사문법적 기술의 출발점이기도 하여 매우 큰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이 글에서는 필자가 그 동안 한국문화연구소의 역주 사업에 관여해 온 一員으로서 실제 작업을 담당하면서 생각하고 느낀 바를 중심으로 하여 역주 작업과 관련된 몇 문제를 간단하게 소묘해 보기로 한다.

2. 고전 역주 작업의 목표와 의의

역주는 어떠한 문헌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인들이 그 본문 및 그에 대한 현대어역과 주석을 읽어 전후의 맥락과 의미 및 의의를 어느 정도 완벽한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해당 텍스트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金容沃 같은 이는 이와 같이 이른바 '完全翻譯'과 완벽한 주석을 갖춘 역주 작업이 연구논문이나 학위논문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金容沃 1983a/1985: 42-43).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등과 같은 史書의 역주는 간단한 해제를 배운 다음, 한문으로 된 원문을 현대어로 번역하고, 난해한 구절이나 잘못된 곳에 대한 교감을 행하며 앞뒤 사이의 관계를 밝히기도 할 뿐 아니라, 색인 작업을 하여 독자의 편의에 부응하도록 목표를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져 온 다른 한국 고전의 역주도 크게는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문헌의 성격이나 해당 학문 분야의 성격에 따라서는 텍스트의 온전한 이해를 꾀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예컨대, 『龍飛御天歌』는 10권 10책의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으나 국문가사는 125章밖에 되지 않는다. 국문학적 관점에서나 국어학적 관점에서는 125장의 국문가사가 주된 관심 사항이 되고, 한문 주석문은 그다지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2) 『용비어천가』 전체에 대한 완전한 역주는 국문가사, 한문 주석문 전체가 대상이 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이 관심의 차이에 따라서는 역주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었던 것이다.

역주본의 짜임새는 대개 해당 문헌에 대한 해제, 원문의 판독, 현대어역, 주석, 색인의 체재로 이루어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문을 영인하여 실음으로써 원문의 판독을 대신하기도 한다. 원문의 판독에 있어서는 엄밀한 교열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오자 투성이의 산만한 판독은 원전 그대로 읽는 것보다 못한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제는 그 동안 간단한 수준에서 행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형태서지학과 내용서지학을 원용한 본격적인 해제논문으로 씌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대어역은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현대어로 옮겨 놓는 것보다는 자유역을 하는 것이 일반 독자를 위하여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역주본의 독자를 어느 층으로 상정하느냐에 따라 이 번역의 수준은 달라질 수도 있다. 특히 이것은 텍스트의 성격에 따라 달라 결정될 수 있기도 한다. 주석은 참조주와 내용주로 그 갈래가 나뉘어지나 텍스트의 성격에 따라 참조주를 중시하기도 하고 내용주를 중시하기도 한다. 예컨대 『國譯 山林經濟』나 『國譯 樂學軌範』, 『訓民正音』 등의 경우에는 참조주를 중시하고 내용주를 부분적으로 가미하나, 『한등록[閑中

(2) 국어학적 관점에서는 한문 주석문에 들어 있는 인명, 지명이나 한자음, 성조에 대한 관심이 더 있을 수 있다.

漫錄]』이나 『燕行日記』류, 『龍飛御天歌』 등의 경우에는 내용주를 중시하고 참조주는 부분적으로 가미하는 경향을 보인다. 역주본에는 색인 작업도 원칙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러한 색인 작업이 충실하게 행해져 상당한 양이 축적되면 텍스트 상호간의 교차색인도 만들어질 수 있게 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해당 방향의 事典이나 辭典도 만들어질 수 있다.

방대한 양을 가진 고전 작품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원되어 역주 작업이 행해지게 된다. 이럴 경우, 항상 번역과 주석의 일관성이 문제시될 수 있다. 번역의 취향과 원전에 대한 이해도, 원전을 대하는 태도 등에서 학자마다 시각을 달리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번역의 문제에 있어서, 예컨대 이미 15세기에 언해된 문헌 가운데 상당한 분량을 가지는 『杜詩諺解』, 『圓覺經諺解』나 16세기의 『小學諺解』만 들더라도 번역 양상에서 卷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한자음이 번역자에 따라서 달리 달리기도 하며, 원전에 대한 이해의 태도가 달리 노출되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³⁾ 이와 유사한 문제점이 현대의 역주 작업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번역과 주석에 대한 철저한 교열 작업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것이다.

주석도 난해한 어구에만 몇 개 붙이고 마는 것보다는 풍부하게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주본의 성패는 특히 주석의 풍부성에 크게 달려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컨대, 불교관련 언해문헌이라고 해서 불교용어에 대한 해설을 장황하게 붙이는 일이 국어학 방면의 역주 작업에서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어국문학 방면에서의 역주 작업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국문학 방면에서는 한글로 된 고시가류, 고전소설류, 고전수필류 등의 작품만이 아니라 차자표기로 된 향가나 한문으로 된 詩話集, 文集 등의 여러 문헌들이 그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필사본으로 남아 있는 문헌에 대한 역주는 국문학 연구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어 왔다. 이제 10권 이상이 되는 방대한 대하소설류가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연구층을 폭넓게 형성할 수 있을

(3)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에서 목격되는 한자음의 차이와 원전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에 대하여는 졸고(1988)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다.

것으로 기대된다. 국어학 방면에서는 1920년대에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가 향가와 이두에 대한 역주 작업을 행하고,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가 『龍飛御天歌』의 국문가사와 『鷄林類事』의 고려어에 대한 역주 작업을 행함으로써 역주 작업이 시작되었다. 특히 1940년에 해례본 『訓民正音』이 발굴되어 나옴으로써 이 방면의 역주 작업은 크게 성황을 이루게 되었다. 국어사쪽의 문헌 자료에 대한 역주 작업은 국어에 대한 역사적 연구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고전문법 내지 역사문법에 대한 저술이 한 편도 없었던 시점에서는 이러한 역주본이 그 대역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던 것이다. 마에마 교사쿠의 『龍歌故語箋』(1924)은 해방 후 우리의 손으로 그와 유사한 역주 작업을 행한 수많은 업적의 濫觴이 되었는데, 특히 허웅의 『용비어천가』(1955)는 1950년대의 국어학에서 역사문법에 대한 중요한 길잡이 노릇을 하였다.

3. 한국문화연구소 역주 사업의 방향과 실제

현재 한국문화연구소에서는 국문학 방면의 경우 대하소설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역주 작업을 하고 있는바, 1년에 두 작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4) 국어학 방면의 경우 1994년에 『老乞大諺解』의 異本들에 대한 역주 작업을 끝마쳤고, 1995년부터는 『法華經諺解』를 대상으로 하여 3년을 기한으로 역주 작업을 행하고 있다.

국문학 방면의 역주 작업은 1994년도에는 『소현성록』과 『옥루몽』을 대상으로 행해졌으며, 1995년도에는 『성현공숙렬기』와 『유효공선행록』을 대상으로 행해졌고, 1996년도에는 『양현문직절기』를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 작업의 목표는 일반 독자와 관심있는 연구자가 읽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4년도에 역주 작업이 행해져 보고서로 나와 있는 『소현성록』과 『옥루몽』은 각각 21권과 14권으로 된 방대한 양을 보이는데, 『소현성록』은 이상택·임치균·송성욱·박희병·이종묵·이주영의 6명이, 『옥루몽』은 김진세·구본기·신동훈·조태영·김명호·조광국의 6명

(4) 그러나 1996년도에는 『양현문직절기』 한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해제, 원문 판독, 현대어역, 주석, 운문 및 교열을 행하였다. 『소현성록』의 연구결과 보고서는 1020면, 『옥루몽』의 연구결과 보고서는 1802면으로 되어 있는바, 역주의 짜임새가 해제논문 + 원문 판독 및 주석 + 현대어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1994년에 행해진 국문학 방면 역주 작업의 결과물 일부를 다음에 가져와 보기로 한다.

(1)

소현성록 권지일

화설 변경¹⁾ 남문 뱃 스십니의 혼 퇴히 이시니, 호왈 즈운산²⁾이요, 주희 삼백니니 산형이 팔장³⁾ 소진 듯하고, 폭뢰 전후로 나는 곳이 칠십여처라. 잔완⁴⁾ 혼 물이 모혀 큰 못시 되여시니, 주희 삼십여리오, 김희 일천쳐이니, 골은 완룡담⁵⁾이라. 못과 산이 남북으로 들녓고, 그 가운데 혼 골이 이시니, 골은 장현동이라. 주희 일백니오 평탄하기 유리롤 밀친 듯 하더라. 즈운산 스면의 창송죽죽이 스시로 봄빛출 띄여시니, 심슈⁶⁾ 하고 화려하며 봉만이 열들이니, 텃디 초판⁷⁾홀 제, 뭍은 정괴와 신이혼 괴운이 오로지 완룡담과 즈운산의 잠겨 슈출⁸⁾ 하미라. 그 골 속의 혼 처시 이시니, 성은 소오 명은 담이라. 교목세가⁹⁾오 팔백년 구족이러라. 그 조상이 한담 이덕롤 섬겨 덕덕로 명문지상이러니, 오계¹⁰⁾적 텃히 대란하니 소담이 시절을 피하여 이곳의 은거하니, 부인 양시는 참정 양문광의 장녀라.

1) 변경: 변경(下京). 중국 하남성(河南省) 개봉현(開封縣)의 옛 이름. 후량(後梁) 및 북송(北宋)의 도읍지였음.

2) 즈운산: 자운산(紫雲山). 중국 하남성에 있는 산.

3) 팔장: 八障. 여덟 폭 병풍.

4) 잔완: 잔원(潺湲)의 오기. 졸졸 흐르는 물.

5) 완룡담: 와룡담(臥龍潭).

6) 심슈: 深邃. 깊고 그윽함.

7) 텃디 초판: 천지 초판(天地 初判). 천지가 처음으로 열림.

8) 슈출: 수출(秀出). 다른 것보다 빼어남.

9) 교목세가: 교목세가(喬木世家). 여러 대에 걸쳐 중요한 벼슬을 지내 그 나라와 운명을 같이하는 집안.

10) 오계: 五季. 당나라와 송나라 사이의 시대. 이른바 5호(胡) 16국(國)이 부침(浮沈)하던 때임.

(2)

소현성록 권지일

화설. 변경 남문 밖 사십 리에 한 산이 있으니 호왈 자운산이요, 주위가 삼백 리니 산형(山形)이 팔장을 꽃은 듯하고 폭포가 전후로 나는 곳이 칠십여 처라. 잔원한 물이 모여 큰 못이 되었으니 주위가 삼십여 리요 깊이 일천 척이니 가로되 와룡담이라. 못과 산이 남북으로 들렸고, 그 가운데 한 골이 있으니 가로되 장현동(藏賢洞)이라. 주위가 일백 리요 평탄하기 유리를 밀친 듯하더라. 자운산 사면에 창송녹죽이 사시로 봄빛을 띠었으니 심수하고 화려하며 봉만(峯巒)이 열 둘이니, 천지 초판할 때 맑은 정기와 신이한 기운이 오로지 와룡담과 자운산에 잠겨 수출함이라. 그 골 속에 한 처사가 있으니 성은 소요, 명은 담이라. 교목세가요 팔백 년 구족(舊族)이더라. 그 조상이 한당(漢唐) 이대(二代)를 섬겨 대대로 명문 재상이더니, 오계 적 천하가 대란(大亂)하니 소담이 시절을 피하여 이 곳에 은거하니 부인 양씨는 참정 양문광의 장녀라.

(1)은 원문 판독과 주석을, (2)는 현대어역을 담고 있다. 대체로 지금까지 국문학 방면에서 이루어진 고전소설 역주 작업의 틀을 따르고 있다. 卷別로 원문 판독, 주석, 현대어역을 행하고 있다. 이러한 방대한 작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전소설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방면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한다면, 원문의 판독에 張次 표시를 해 주고 원문에 대한 색인을 덧붙이면 더욱 좋을 것이다. 적어도 단어 별 색인이라도 될 수 있다면 고전소설의 단어사전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밑바침이 될 것이다. (5) 이 역주 작업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들이 쉽게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어역도 자유역을 택하여 어려운 구절을 현대의 일상언어로 쉽게 풀이하면 앞으로 일반 독자들이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대판 고전소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제 국어학 방면에서 행해진 역주 작업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994년도에는 『老乞大諺解』(상, 하 2권)의 이본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1995년

(5) 이 글을 인쇄하는 도중에 『소현성록』과 『옥루몽』의 어휘목록집이 만들어져 나왔다. 그 정확한 제목은 “고전작품 역주 사업 어휘목록(1): 〈소현성록〉, 〈옥루몽〉”으로 되어 있다. 앞으로 이 방면에서 행하게 될 역주 작업에 크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로서 그 활용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도 이후에는 『法華經諺解』(전7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역주 작업은 일반인보다는 학부 수준의 국어학 전공자가 읽어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석에는 표기·음운·형태·통사·어휘 등의 여러 부문에 대한 문법적 기술을 행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문법'은 넓은 의미에서의 문법을 의미하는바, 최현배식으로 하면 '말본', 『한글 맞춤법』식으로 하면 '어법'이 그에 해당하는 용어가 될 것이다. 1994년도 역주 작업은 『翻譯老乞大』(1510년대), 『老乞大諺解』(1670년), 『平壤板 老乞大諺解』(1745년), 『老乞大新釋諺解』(1763년), 『重刊老乞大諺解』(1795년)의 다섯 異本을 대상으로 하되, 한 사람의 말을 단위로 하여 여러 이본의 언해문을 대비시켜 그 원문을 입력하고 현대어역 및 주석을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老乞大新釋諺解』는 안병희 교수에 의해 새로이 발굴되어 나온 것인바, 이 역주 작업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안병희·김완진·이현희·최명옥의 4명이 해제, 이본 대비 및 현대어역, 주석, 색인, 교열 작업을 행하였다. 그 짜임새는 해제논문 + 연구논문 + 원문 대비·현대어역 + 주석 + 색인으로 되어 있다.

다음에 그 역주 작업의 결과물 일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3)

[처음 만나다]

A: 큰형님 네 어드러로서부터¹ 온다² <상 1a>

B: 큰형아 네 어드러로서부터 온다 <상 1a>

C: 큰형아 네 어드러로서 조차³ 온다 <상 1a>

D: 형아 네 어드러로서 온다 <상 1a>

E: 큰형아 네 어드러로서 조차 온다 <상 1a>

F: 대형, 너는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A: 내 高麗 王京으로서부터 오라⁴ <상 1a>

B: 내 高麗 王京으로서부터 오라⁵ <상 1a>

C: 내 高麗 王京으로서 조차 오라 <상 1a>

D: 내 朝鮮⁶ 王京으로 조차 오라 <상 1a>

E: 내 朝鮮⁶ 王京으로 조차 왔노라⁷ <상 1a>

F: 나는 고려 왕경으로부터 왔다.

- 1) 어드러로서부터: 조사 '-로서'는 시발점을 나타낸다. 동사 '블-'(從)의 활용형인 '부터'가 문법화하여 완전히 조사화하면서 이 '-로서'와 복합되어 복합조사를 이루게 되었다.
- 2) 온다: 의문법 어미 '-나다'는 항상 동사 어간과 계사 어간 뒤에만 통합하며, 주어가 청자(내지 독자)가 되는 직접의문에만 사용되는 어미이다. 동사 어간에 이 어미가 통합할 때 시제나 시상 요소를 그 사이에 통합시키지 않을 때 그 통합형은 과거적인 것이다. 즉, 현대국어로 번역할 때, '온다'는 "왔느냐"로, '오는다'는 "오느냐"로 번역해야 한다. 이 문장의 앞에 부름말이 '큰형님'(다른 본에서는 '큰형아')로 되어 있는데도 그에 일치하는 어미가 '-나다'로 된 것이 경어법상 어색하게 보인다. 이 노걸대류들의 언해문에서는 부름말과 그에 호응하는 어말어미 사이에 나타나는 경어법이 일치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3) 어드러로서 조차: 위의 주 (1)에 보이는 '어드러로서부터'의 '부터'가 C본, E본에서는 '조차'로 되어 있음이 주목된다. 문법화하기 전의 '부터'와 '조차'는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던 것인데, 이 C본과 E본의 '조차'도 문법화되는 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의 예들을 볼 때, 이런 환경에서의 '조차'는 문법화를 완전히 겪지 못하고 만 데 비해 명사 바로 뒤에 오는 '조차'가 완전히 문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현대국어의 조사 '조차'는 중세국어의 '조쳐'(兼)에서 이어져 왔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런데 B본과 C본 전체를 면밀히 비교해 보면, 이 두 이본 사이의 차이는 대개 표기법 상의 차이가 조금 있고 아주 가끔 어휘 차원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부터'와 '조차'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극히 드문 편이다.
- 4) 오라: 화자(또는, 필자)가 종결되는 서술어의 주어가 될 때 중세국어에서는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된다. 이 '오라'는 '오(동사 어간) + 오(선어말어미) + 라(← 다)'의 통합체인데 'ㄱ'모음 뒤에서 선어말어미의 '-오-'는 표기상 나타나지 않고 어간의 '오'만 상성으로 성조가 변동되어 실현된다. 동사 어간 뒤에 시제나 시상 요소 '-느-'가 통합되지 않은 이 어형은 과거적인 의미를 가지는바, 현대국어의 "왔다"에 대응한다.
- 5) 오랴: '-랴', '-되' 등의 어미는 근대국어 초기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다. 중세국어의 '오라'는 이미 주 (4)에서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되어 있는 것임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이미 16세기 말 이후 선어말어미 '-오-'가 쇠퇴하면서, 원래 어간 쪽에 영향을 주었던 이 '-오-'가 근대국어 단계에서는 종결어미 쪽에 영향을 주어 '-오-'의 원순성이 어미에 반영되어 '-랴'로 실현되게 되

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는 극히 일시간에 걸쳐 지속되고 곧 사라지게 되었다. 뒤에서 보게 될 '떠나라', '날그라' 등에 통합되어 있는 어미 '-으라'도 이런 이유에서 근대국어 단계에 잠시 나타나게 된 어미들이다. E본의 어형이 '왔노라'로 되어 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앗-'이 더 개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종결어미가 '-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즉, '*왔노라'가 아닌 점이 주목된다는 것이다.

- 6) 朝鮮人: 위 A본, B본, C본의 원문인 백화문이 이 D본에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高麗'가 '朝鮮'으로 달리 표현되어 나온 것이다. 이 사정은 E본과 『청어노걸대신석』, 『몽어노걸대』, 『첩해몽어』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 7) 왔노라: 중세국어 식의 A본의 '오라'나 근대국어 초기의 어형을 반영한 B본과 C본의 어형 대신, E본에 '왔노라' 식의 표현이 18세기 후반 국어 자료에 나타남을 유의하기 바란다.

위의 (3)에서 A본은 『翻譯老乞大』(1510년대), B본은 『老乞大諺解』(1670년), C본은 『平壤版 老乞大諺解』(1745년), D본은 『老乞大新釋諺解』(1763년), E본은 『重刊老乞大諺解』(1795년)를 가리키며, F는 현대어역을 가리킨다. 장면별로 [] 안에 소제목을 붙이고 역주 작업을 꾀하였다. 이 장면 표시는 B본 이후의 것에 붙어 있기 때문에 쉽게 분간이 된다. 이 역주 작업에서는 지금까지 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D본이 대상으로 되었음이 특기할 만하다.

『老乞大諺解』류는 기본적으로 백화문을 원문으로 하여 매 글자에 正音과 俗音의 한자음을 달고 구절 별로 언해문을 달아 놓은 중국어 학습서이다. '텍스트의 온전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면 백화문과 중국음도 역주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어학 방면에서의 주된 관심사가 언해문에 있기 때문에 이 역주 작업에서는 언해문에 대한 역주 작업만이 행해졌다. 역사문법 기술의 보충적 역할을 하고, 읽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강독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나 얼마만큼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시기별로 다른 언해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주석에서도 시대적 변천에 따른 변화 양상에 대한 언급이 더 많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다. 이 역주 작업은 결국 부분적 이해의 심화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4. 마 무 리

앞에서 필자는 몇 가지 관점에서 한국 고전의 역주와 국어국문학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에서 행하고 있는 역주 작업의 방향 및 실제에 대하여 언급해 왔다.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여 매우 소략하게 스케치하고 만 듯한 느낌이 없지 않다. 국문학 방면의 역주 작업은 일반인들이 읽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하였고, 국어학 방면의 역주 작업은 학부 과정의 국어학 전공자가 읽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하였음을 언급하였다. 역주 작업의 결과물에 대하여는 앞에서 간략하게 언급된 점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차자표기 자료의 역주 작업, 국어학과 국문학 외 다른 국학 분야의 문헌 역주 작업, 더 나아가서는 국학 전반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역주 과제의 개발 등이 또다른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에 있어서, 해제의 충실성과 색인의 필요성, 번역의 일관성과 주석의 풍부성과 같은 요건은 늘 마음에 새겨 두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에 국문학과 국어학의 공동작업으로 행해진 역주 작업의 일부를 예로 들고 여러 분야에서의 공동 역주 작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로 한다.

(4)

白塩山

—백염산

*기주에 있다(在夔州호나라). 大曆 元年(766) 가을의 작품이다. 『水經注』에 의하면, 廣谿峽은 三峽의 으뜸인데 산 위에 神淵이 있고 못 북쪽에 白塩崖가 있는데 높이가 천여 길이고 神淵을 굽어 보는데, 사람들이 그 꼭대기가 흰 것을 보고 이름하였다 한다.

卓立群峯外

못 봉우리 위로 우뚝 섰고,

蟠根積水邊

강가에 뿌리를 서렸구나.

他皆任厚地

다른 산들은 모두 두터운 땅을 참는데,

爾獨近高天

너만 홀로 높은 하늘에 가깝구나.

白勝千家邑

흰 현판은 천 집이나 되는 고을에 걸렸고,

淸秋萬估船 맑은 가을이라 수많은 상선이 매여 있네.
 詞人取佳句 시인이 좋은 시구를 얻어서,
 刻劃竟誰傳 새긴들 마침내 누가 전하리요?

주석

- * 卓立群峯外 蟠根積水邊: 『荊州記』에 따르면 白塩山 아래 黃龍灘이 있는데 물살이 가장 급해 거슬러 오르기 꺼려하는 곳이라, 이에 積水邊이라 이른 것이다.
- * 他皆任厚地 爾獨近高天: 이상의 4구는 산세가 뛰어난을 그렸고, 이하 2구는 백성이 모여 삶을 말하였고, 끝 2구는 시구가 전할 만함을 자신하였다. 爾는 我로 된 데도 있다.
- * 白勝千家邑 淸秋萬估船: 백방은 현판을 흰색으로 칠한 것이다. 이는 이 산이 기주에 있고 산 곁에 배가 있음을 말한다(白塩은 縣額을 以白爲牌也)라 이는 이 외에 夔州 있고 淸秋와 이쇼물 나르니라). 澤堂은 估字가 평성이므로 賈字의 잘못인 듯하다고 하였다. 估는 古, 里로 된 데도 있다.
- * 詞人取佳句 刻劃竟誰傳: 아름다운 시구로 이 산을 읊어 그 모습을 새기고 싶지만 끝내 읊기가 어려우니 시 짓기가 쉽지 않음을 강조하여 말한 것이다(欲用佳句호야 咏此山而刻劃其形容호나 終難傳播호니 甚言作詩之不易也호라). 周顥가 “刻劃無塩”이라 한 것을 써서, 백염산이라는 이름과 맞추어 쓴 것이다. 誰는 難으로 된 데도 있다.

(5)

白塩山 [在夔州호나라]

뭍(뭇)1 뭇부리 뭇과 구즈기 서고

답사호2 뭇호(뭇호) 불휘 서렛도다

[뭇 산봉우리가 밖에 우뚝 서고,

층층으로 쌓인 물가에 뿌리가 서려 있구나.]

너너3 뫼호 다 들거운 짜호 므던히4 너겅거늘

네 호을로 노핀 하늘헤5 갓갑도다

[다른 산은 다 두꺼운 땅을 임의롭게 여기고 있지만,

너만 홀로 높은 하늘에 가깝구나.]

힌 額勝호른 즘근 집 호을호

뭍근 호을호(호을호) 一萬 호정호늘(호정호늘) 비로다6

[흰 현액을 한, 천 가구의 고을이요,
맑은 가을에 만 척의 흥정하는 배로구나.]

글꼴 사르미 도흔 굿句를 얻느니(엇느니)

刻畫흔들 尺초매 누 傳호리오

[글짓는 사람이 좋은 글귀를 얻는데,
세겨 그린들 끝내 누가 전하겠는가?]

*이 〈白塩山〉은 초간본 『杜詩諺解』 권 13의 4b-5a면에 수록되어 있다.

주 석

- 1) 뭇: 중간본에는 '뭇'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와 같이 ㄹ 말음 명사에 속격조사 '-스'이 통합할 때, 'ㄹ'이 표기에서 주의적으로 빠지는 일은 이미 중세어에서부터 광범위하게 나타났었다. 16세기 말 이후 명사 '물'에서 파생된 '무리'가 새로이 생겨나고, 근대어 이후 단독형 '물'이 소멸하면서(따라서 그 속격형 '뭇'도 소멸하면서), '뭇'에서 기원한 '뭇'은 살아 남았으며 '무리'와는 형태적 유연성을 상실하게 되어 서로 조어법상으로 무관한 항목이 되어 버렸다. 그 결과 현대어에서는 '뭇'이 관형사로 기술되기에 이른 것이다.
- 2) 답사흔: '답상 + 은'의 구조를 가진다. '답상-'(積)은 '상-'(積)과 어휘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답'은 그 성격을 알 수 없다. '답답하-'(鬱, 悶)의 '답'과는 성조상으로 일치하여(다 평성이다) 관련성을 짐작 볼 수 있으나 의미상으로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 3) 녀느: 일반적으로는 '녀느'로 표기되어 나오는 것인데, 모음조화를 어기는 모습으로 되어 있다.
- 4) 느던히: 중세어의 '므던하-' 및 그 파생어 '므던히'(또는 '므더니')는 각각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가볍다, 경솔하다" 및 "가볍게, 경솔히"(輕)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무던하다, 임의롭다, 관찮다" 및 "무던히, 임의롭게, 관찮게"(可)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여기서의 '므던히'는 후자의 의미(즉, "可"의 의미)를 가지는 파생부사로 사용되었다.
- 5) 하눌해: 중세어에서는 '하눌해'로 표기되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는 모음조화를 어긴 모습으로 되어 있다.
- 6) 흰 額 혼 즘른 집 ㄱ을히오 돌근 ㄱ술히 一萬 흥정호는 비로다: 중세어의 계사문 가운데에는 의미상 존재구문과 통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접속된 두 계사문도 그러한 성격을 가진다.

초간본 『杜詩諺解』 권 13에 담겨 있는 〈白堊山〉이라는 시에 대해, 위의 (4)는 한문학 방면에서 역주 작업을 행한 것이고, (5)는 국어학 방면에서 역주 작업을 행하여 짝지어 놓은 것이다. (5)에서 제시한 언해 원문 가운데 괄호 안에 든 것은 중간본 『두시언해』에 나와 있는 어형을 표시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공동작업을 함으로써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한층 심화될 수 있음을 보이는 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한다.

(필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참고문헌

- 姜信沆(1974), 譯註 訓民正音, 新丘文化社.
- 姜信沆(1987), 訓民正音研究, 成均館大學校 出版部.
- 國語史資料研究會 譯註(1995), 譯註 翻譯老乞大, 太學社.
- 金敏洙(1957), 注解 訓民正音, 通文館.
- 金相億(1975), 龍飛御天歌, 乙酉文化社.
- 金聖七(1948), 註解 龍飛御天歌(上 下), 朝鮮金融組合聯合會.
- 金英培(1972), 釋譜詳節 第廿三·四 註解, 一潮閣.
- 金英培(1985), “석보상절 제22”, 現代文學 통권 366호.
- 金英培 編譯(1986), 釋譜詳節(上, 下), 現代佛教新書 57, 58, 東國大學校 佛教刊行委員會.
- 김영배 감수(1993), 금강경언해 주해, 학술총서 1, 동국대 동악어문학회.
- 金英培·張榮吉 編著(1995), 般若心經諺解의 國語學的 研究, 東岳語文學會 學術叢書 3, 圖書出版 大興企劃.
- 金容沃(1983a), “우리는 동양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의 문학, 1983년 봄호, 통권 27호 [東洋學 어떻게 할 것인가(民音社, 1985), 25-56면에 재수록됨].
- 金容沃(1983b), “翻譯에 있어서의 時間과 空間”, 민족문화 제9집 [東洋學 어떻게 할 것인가(民音社, 1985), 57-135면에 재수록됨].
- 金鎮世(1987-1994), 玩月會盟宴, 서울대학교출판부.
- 朴敬伸(1994), 東海岸 별신굿 巫歌, 國學資料院.

- 朴炳采(1974), 論注 月印千江之曲(上), 正音社.
- 朴炳采(1976), 譯解 訓民正音, 博英社.
- 박종국(1976), 주해 훈민정음, 正音社.
- 박종국(1990), “15, 16세기초 국어학의 문헌 역주(1)”, 河東鎬 教授 再庚午紀念論叢, 탐출판사.
- 박종국(1991), “15, 16세기 국어학의 문헌 역주(2)”, 국어의 이해와 인식, 한국문화사.
- 박지홍(1984), 풀이한 訓民正音, 科學社.
- 方鍾鉉(1947-1948), “龍飛御天歌 講義”, 한글 12.2, 12.4, 13.1, 13.2.
- 徐大錫·朴敬伸(1990), 安城巫歌, 集文堂.
- 徐炳國(1976), 新講訓民正音, 慶北大出版部.
- 세종대왕기념사업회(1991), 역주 석보상절 제6·9·11; 제13·19(전2책).
- 세종대왕기념사업회(1992), 역주 월인석보 제1·2.
- 세종대왕기념사업회(1993), 역주 월인석보 제7·8.
- 安大會(1995), 對校譯註 小華詩評, 國學資料院.
- 俞昌均(1974), 訓民正音, 螢雪出版社.
- 李東林(1959), 註解 釋譜詳節, 東國大學校 出版部.
- 李丙疇(1958), 杜詩諺解批注, 通文館.
- 李常春(1946), 註解 龍飛御天歌, 동화출판사.
- 李相澤(1994), “고전작품 역주 연구 및 한국근대화과정 연구(I-1, I-2, I-3),”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보고서.
- 李成九(1985), 訓民正音研究, 東文社.
- 李賢熙(1988), “小學의 諺解에 대한 比較研究”, 한신논문집 5.
- 李賢熙(1993-1994), “杜詩諺解 講讀資料 권 6, 7, 8, 9”, 유인물.
- 李賢熙(1994), 中世國語 構文研究, 新丘文化社.
- 全在昊(1968), 杜詩諺解論釋, 宣明文化社.
- 全在昊(1983), 杜詩諺解講義, 學文社.
- 全鎔大·朴敬伸 譯註(1991), 譯註 丙子日記, 예전학술사상총서 10, 예전사.

- 千炳植(1985), 釋譜詳節 第三 註解, 亞細亞文化社.
- 崔 喆·安大會(1986), 譯註 均如傳, 새문社.
- 許 雄(1955), 龍飛御天歌, 正音社.
- 허 옹(1988), 용비어천가, 형설문고, 형설출판사.
- 許 雄·李江魯(1962), 註解 月印千江之曲, 新丘文化社.
- 志部昭平(1990), 諺解 三綱行實圖研究(全二冊), 東京: 汲古書院.
- 前間恭作(1924), 龍歌故語箋, 東洋文庫論叢 2.